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현명한 낚시꾼과 장사꾼

는 고객이 모여들기를 기다린다. 낚시꾼이나 장사꾼이란 말을 들으려면 그 분야에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낚시꾼이란 말을 듣게 된다. 낚시하러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사람을 낚시꾼이라 부를 수 없으며 온종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실적이 없는 사람을 장사꾼이라 할 수 없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와 미끼의 준비를 잘해야 하고 낚시할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고기가 입질을 하면 적시에 낚아채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낚시터를 정했다면 그곳에 고기들이 모여들도록 떡밥을 주어 고기가 모이게 한다. 현명한 장사꾼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고객이 모여들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광고에 해당하는 경비만큼 고객이 이익을 보게 해서 단골손님을 만든다. 단골손님이 많은 가게의 장사꾼은 돈을 버는 장사보다는 사람을 버는 장사에 우선 한다. 그러므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가게를 찾은 고객이 돈을 보태주는 봉이라 생각하고 이문을 많이 행기는 상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전이 한산해진다. 이 논리는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이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 고객 소비자는 그 시장으로 모여든다. 어

떻게 하면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게 할 것인가에 낚시꾼은 노련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장사꾼은 고객이 모여들게 하는 전략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소매상인 가게의 상인으로부터 사서 쓰게 되는 데 생필품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매상의 단단계 유통구조에서 물건값에 거품이 많아 불어 소비자는 값비싼 물건을 사게 되며 상인이 이문을 많이 행기면 판매향은 더욱 비싸지게 된다. 소비자들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물건값을 비교할 수 있고 상인이 정당한 이문인 운반비 보관비 외에 이문을 많이 행기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장사꾼은 옛날처럼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이 봉이 아니라 돈을 알아야 한다. 신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인 프로슈머 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인 인터넷 쇼핑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장사꾼은 낚시꾼이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에 따라 낚시 도구를 달리하듯이 변해가는 유통구조와 소비자들의 취향을 살펴서 고객 유치에 힘쓰는 장사꾼이 돼야 한다. 옛날 어두웠던 시대에 소비자가 봉이 돼 상인에게 이익을 주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봉사하는 장사꾼으로서 전문성을 길러 돈을 버는

장사꾼이 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의 시골 오일장 시장은 대부분이 영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시장이었으며 여기에 장꾼들이 모여들어 거래를 도왔으나 최근 재래시장은 직거래 시장이라기보다는 중간소매상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주축을 이루는 시장이 되고 있음으로 소비자들이 호감을 사지 않는 시장이 되고 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장사꾼이 된 상인들은 소비자를 돕는 현명한 장사꾼이 돼야 한다. 낚시꾼이 낚시가 잘되는 낚시터를 찾고 낚시를 비롯한 어구를 새롭게 해 현명한 낚시꾼이 되듯이 장사꾼은 변해가는 유통구조를 파악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팔아 고객이 소비자가 선호하고 찾아오는 장사꾼이 돼야 한다.

경쟁하는 시장들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소비자가 찾아들게 하는 현명한 시장경영을 해야 한다. 소일거리로 낚시꾼이 되고 장사꾼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물고기를 잘 잡는 낚시꾼과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에게서 방법을 배워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물고기나 고객이 모여들 수 있게 하고 기다리는 현명한 낚시꾼과 장사꾼이 돼야 한다.

물고기를 낚시로 잡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낚시꾼이라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 사려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손님 오기를 기다려 물건을 팔고 이익을 행기는 사람을 장사꾼이라 한다.

낚시꾼은 물고기가 모여들기를 기다리고 장사꾼은 물건을 사려

독자기고

봄철, 화재 예방 우리 모두가 함께하자

채영환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겨울철 지속되는 추위에 옷을 푹푹 싸매고 출근길을 나선 게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 봄의 따듯한 기운이 우리를 찾아왔다.

새싹이 움트는 봄, 소방서에서는 마냥 반갑지만 하진 않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건조하고 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몹시 취약하기 때문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건조한 대기, 그리고 강풍과 맞물려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봄철 화재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화재 피해 방지에 관련된 4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 중,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용품은 코드를 뽑아내야 한다.

또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격 전압에 맞는 멀티탭을 사용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 또는 화기를 사용할 때 안전 수칙 준수, 가정 내 화재경보기의 배터리를 점검 등을 실시해 화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봄철에는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야외 활동 시에도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해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불씨를 방치하는 것처럼 부주의한 행동은 산림 화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봄철에는 건조한 환경과 바람으로 인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시기로 쓰레기 소각이나 잔디를 태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행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 및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대형 화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작은 실천이 곧 화재 예방과 직결되는 관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정의 행복을 실천하고 화재와 각종 재난이 없는 안전한 만춘지절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 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가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 사 장 기백관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